

民族主義, 共產主義 그리고 民主主義 : 韓國의 경우

서 대 속

I. 우리나라 民族主義

III. 南韓의 民主主義

II. 北韓의 共產主義

IV. 結論을 대신하여

주어진 제목이 아주 방대하므로 몇가지 기본적인思潮를 밝히지 않고는 焦點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나라가 兩分되어 서로가 우리나라 思想이 아닌 外來사상 卽 共產主義나 民主主義를 가지고 民族主義를 호소해야하기에 問題는 더 복잡한 것 같다.

民族主義, 共產主義, 民主主義思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世紀에 가장 重要하고도 많이 쓰여지는 主義主張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思想中에도 제일 基本的인 것은 民族主義이다. 民族主義를 土臺로 삼지않은 共產主義나 民主主義가 성공한 境遇는 없다. 民族主義를 經視한 國際共產主義運動은 흔히 “民族主義바위”에 부딪혀 파괴되었다고 한다.¹⁾ 特히 코민테른(1919~1943)이 活發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理由는 그것이 朝鮮공산당이라는 朝鮮民族主義에 立脚한 데 있었고 마르크스가 움직이던 第一國際共產主義運動이나 레닌이否認한 社會主義的인 第二國際共產主義運動과는 다른 것이며 그 國際法이란 稀薄한 것이었다.

1) Gunther Nollau, *International Communism and World Revolution* (Indon: Hollis & Carter, 1961), p. 209.

“A review of the history of the Comintern and of the factors which led to its dissolution must lead on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hird International, exactly like the First and Second Internationals, foundered on the rock of nationalism.”

民主主義도 亦是 마찬가지이다. 소위 民主主義의 最前線을 걷고있는 英國이나 美國도 그들의 民主主義는 그들의 民族主義에 基礎를 굳게 잡고 있다. 英國은 王權을 尊重하면서 民主主義를 키워왔고 美國은 王權을 否認하고 民權위에 民主主義 土臺를 잡았다.

우리가 살고있는 20世紀의 가장 重要한 思想은 民族主義라고해도 過言이 아니다. 世界第一次 또 第二次大戰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戰爭이란 民族主義의 表現이다. 또 오늘날의 國際機構 즉 유엔을 봐도 戰後 처음 생겼을 때는 40餘個國으로 始作한 것이 지금은 140餘個國이 가담해 있다. 이것은 20世紀 後半期の 新生國家들에 起因하고 新生國家란 亦是 民族主義의 表現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民族主義의 概念이 爲政者들에게 確實히 서 있는 것 같지 않다. 國土가 兩斷되어 北에서는 共產主義를 南에서는 民主主義를 主張하며 民族主義를 忘覺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南北이 서로 國際舞臺에서 他民族에게 우리 民族을 욕질하는 것은 民族主義에 違反되는 行爲이다. 또 國土가 兩斷된 지 40餘年이 지난 오늘날에도 왜 北에서는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을 爲해 좋고 南에서는 왜 民主主義가 우리 民族을 統合하는데 有益한 思想이라는 理論的 뒷받침이 없는 것 같다.

이 모든 問題는 큰 課題이다. 이 論文에서는 南과 北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民族主義와 北의 共產主義 즉 金日成의 主體思想 그리고 南의 民主主義, 特히 朴正熙의 民主主義 革命思想에 對해 簡略하게 考慮해 보고자 한다.

I. 우리나라 民族主義

民族主義란 根本적으로 政治學에서 쓰여지는 用語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說明도 多樣하다. 구태여 簡略하게나마 民族主義의 정의를 내린다면 “民族主義는 民族性和 愛國心の 融解

이고 民族的 愛國心을 人間의 어떠한 忠誠心보다 더 貴重하게 생각하는 것을 民族主義"라고 한다.²⁾

또 여러 종류의 民族主義理論을 簡略하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英國의 보링부룩(Henry St. John Bolingbroke)이나 佛蘭西의 루소(J.J. Rousseau)가 提唱한 人道主義의 民族主義(Humanitarian Nationalism)는 中世紀의 暗黒時代에서 벗어나는 계몽운동의 하나로 合理主義의 文化에 基準한 人間의 集團忠義를 찾는 것이어서 基督教文化에 依存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境遇에는 直接的 連關性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사람 본 허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가 提唱한 文化民族主義(Cultural Nationalism) 理論에서 우리나라도 民族主義의 根源을 밝힐 必要가 있다. 본 허더는 民族主義의 差別은 먼저 그 나라의 地理 즉 領土, 氣候 즉 環境 등 주어진 條件으로 시작하여 그 民族과 나라가 發展시킨 特異한 歷史傳統, 言語, 文學, 敎育, 風習 그리고 慣例같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史學家들이 우리 朝鮮民族의 起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重要的 것이 아니고 그 보다는 民族主義를 工夫하는 政治學徒에게는 우리 民族의 民族意識이 大略 어느 때 쯤부터 發生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民族意識 發達史를 본다면 大略 統一新羅가 三國의 遺民을 合力하여 唐을 驅出한 것이 우리 民族起立의 杼이라고 한다. 그리고 民族意識의 完成은 麗末의 雙城牧復과 朝鮮朝初 즉 世宗王때 六鎮四郡을 開拓한 後였다고 본다.³⁾

이러한 이야기를 한 趙芝勲先生은 民族意識이 일어난 德에 우리나라에 外勢가 侵略했을 때 즉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우리나라 民族은 化家爲國의

2) "Fusion of patriotism with nationality, and the predominance of national patriotism over all other human loyalties is nationalism." 民族主義에 對한 基本研究로는 C.H.J.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Horace B. Davis, *Nationalism and Socialism*. 等の 冊들이 있다.

3) 趙芝勲, 「韓國民族運動史」(서울: 一志社, 1973).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서울: 高麗大學出版部, 1973). 等を 보라.

一方的 義務만을 强要한 것이지 義務와 權利를 共有한 運命의 共同體로 自覺한 民族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民族은 異民反抗의 民族意識보다는 王朝에 對한 忠誠 또는 尊華攘夷思想이 그 中核이고 朝鮮朝의 對異民族鬭爭에 앞장선 것도 儒林이라고 한다.

비록 不完全한 民族意識의 起源이라도 이러한 起源은 重要하다. 西洋만 하더라도 한 民族의 義務와 權利를 共有한 共同體로 自覺하여 싸운 民族運動은 佛蘭西革命에서야 처음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民族主義의 概念은 佛蘭西革命때 “자코빈”派에 依해 提唱된 “자코빈”民族主義(Jacobin Nationalism)라는 것이다. 이 民族主義는 그 性格이 아주 戰鬪的이며 黑白論이다. 즉 나의 편 아닌 사람은 나의 敵이고 民族의 敵은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强硬한 民族主義는 宣敎的인 熱을 가지고 있고 窮極의으로는 帝國主義로 發展한다. 이러한 民族主義 思想아래 國民은 全部 軍人이요 軍人은 全部 나라의 國民이라는 卽 國民皆兵制度 徵兵制度가 나온다. 또 무슨 노래를 지어서 國歌라고 하고 무슨 포복에다 色칠해가지고 國旗라고 하며 國家에서 敎育기관을 세워 自己民族의 傳統을 後世에 敎育시킨다. 이러한 熱, 國家主義 또는 民族主義에서야 처음 國民의 義務와 權利를 共有한 民族運命의 共同體를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世紀의 民族主義는 이 “자코빈”民族主義의 性格이 第一 농후하다.

이러한 强硬한 民族主義 즉 自然人權에 기초한 民主主義의 絕對主權國家를 反對하여 나온 것이 英國의 에드몬드 버크(Edmund Burk)가 말하는 傳統의 民族主義이다. 이 사람은 人間性은 歷史에서 찾아야하고 人間은 傳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즉 英國의 경우는 英國歷史와 傳統에 基礎한 王權의 專制政治도 아니고 民衆의 獨裁도 아닌 中産層의 民族主義라고 하였다. 또 民族性이란 漸進的으로 發展하는 進化的인 것이지 革命的인 것은 아니며 어느 民族에도 忠誠의 階層이라는 것이 있어 한 民族의 愛國心이란 歷史的인 權利이고 進化的으로 發展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多元化

社會에서는 民族에 對한 忠誠心이란 階級性을 가진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보다시피 民族主義의 概念이란 多樣한 것이고 그의 發展도 여러가지 길을 걸어왔다. 民族主義란 어느 한 民族이 自己 民族意識에 基準하여 自治나 獨立 또는 外勢를 逐出하는데 必須思想이나 또 民族主義는 한 民族이 他民族을 侵略하는 데도 쓸 수 있는 好戰의인 思想의 뒷받침도 된다. 즉 民族主義란 같은 그 양쪽에 날이 있는 쌍날의 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民族主義에 對해 여러가지 論文도 發表하고 學者들이 많은 問題를 舉論하였다. 1947年 韓國國際政治學會에서 韓國의 民族主義란 題目을 다뤘다. 또 趙芝勲先生의 韓國民族運動史의 研究, 차기벽先生의 韓國民族主義의 理念과 實態 그리고 崔相龍교수外 몇몇 學者들이 쓴 韓國民族主義의 理念 등 여러 研究書籍이 있다.⁴⁾

여기서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의 民族의 有無나 歷史의 長短, 또는 民族意識의 強弱을 論할 必要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야말로 나라를 빼앗긴 經驗도 있고 또 現在 나라가 分斷되어 있기 때문에 民族意識이 아주 強力하게 登場하는 民族의 國家이다. 우리나라 學者들은 우리나라 民族主義를 抵抗民族主義라고 한다. 즉 西歐型은 個人的 自由·社會의 平等·法治主義·合理主義 등으로 國家를 社會와 個人에게 종속시켜 民主的 開放社會를 이룩했으나 우리나라는 國民의 自由보다는 民族의 獨立을 爲해 個人的 自由보다는 國家의 權力을 강조하는 권위적인 폐쇄사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民族主義에는 指導層에도 問題가 있었고 國民의 政權에 對한 不信 등 여러가지를 指適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우리나라 民族主義의 內容의인 것을 說明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民族主義의 最大의 問題는 먼저 우리 民族을 統合하는 것이다. 우리民族主義는 다른 民族의 侵害는 많이 받았으나 他民族을 侵略한 적은 없는 것 같다. 侵略은 커녕 統合도

4) 韓國國際政治學會, 特輯, 「韓國의 民族主義」(國際政治學會論叢 第六輯, 1967). 車基鏞,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서울: 까치, 1978). 崔相龍外, 「韓國民族主義의 理念」(서울: 亞細亞政策研究院, 1977).

안돼 있다.

앞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民族主義는 西歐型이나 우리나라 것이나를 莫論하고 排他的인 思想이고 理性的이기보다는 感情的인 思想이다. 즉 “옳건 그르건 내 나라”라는 말이나 越南戰때 美國에 普遍化되었던 “美國을 사랑하던지 아니면 나가라”라는 口號들은 다 民族主義의 感情的 表現이다.⁵⁾ 또 新生國家들이 植民地로부터 獨立할때 “植民政府는 아무리 有能하고 有效有益하다 하더라도 自治政府란은 못하다”라고 民族主義的인 表現을 많이 썼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民族主義감정에 立脚해서 南에서나 北에서 民族主義問題를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韓國民族主義나 韓國의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을 南韓의 局限된 韓國이라면 우리 民族史上에서는 無意味한 것이고 南韓의 政局이 北韓의 우리 民族에 對하여 言及을 못하게 한다면 그 亦是 非民族的인 政府이다. 우리가 以南을 韓國 또는 以北을 朝鮮이라고 할 때 朝鮮을 빼놓은 韓國民族主義는 있을 수 없고 韓國을 除外한 朝鮮民族主義도 無意味한 것이다. 韓國에서나 朝鮮에서나 民族主義를 論할 때 서로 異民族같이 取級해서는 안된다. 事實은 南韓이나 北韓이나 지금 異民族 以上으로서로 排他的이며 獨無的이다. 北韓에서는 무슨 共產主義理論에서 民族主義를 背反하고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韓國戰爭과 같은 非民族主義的인 同族상잔의 慘事도 北韓은 무슨 自由와 正義를 爲한 朝鮮人民의 正義의 祖國解放戰爭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國際主義는 우리 民族主義에 어긋난 이야기이다. 安重根이나 尹奉吉 같은 刺客들도 우리나라 民族主義的 史上에서 왔을 때 義士가 되고 民族의 英雄이 된다. 同族이 同族을 殺害했을 때는 殺人者밖에 안된다. 北韓의 共產主義나 南韓의 民主主義나 우리 民族主義에 立脚하지 않은 思想은 非

5) 英語로 民族主義를 적절하게 表示하는 口號는 많다. 여기에 例를 든 것은 My country, right or wrong; America, Love it or Leave it. A colonial government, however good, is no match for a self-government.

民族的인 思想이며 우리나라를 爲해서는 害로운 思想이다.

II. 北韓의 共產主義

共產主義를 외친 우리 先烈들도 朝鮮의 獨立을 가져올려고 했지 自己民族이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데 무슨 永遠한 世界의 共產革命을 부르짖은 사람은 없다. 또 지금 北韓의 共產주의도 옛날 코민테른(Comintern)에서 이야기하던 것과 같은 무슨 世界의 勞動者·農民은 團結하라든가 朝鮮聯邦이 朝鮮의 無產者의 祖國이라든가 이러한 非民族主義的인 것은 아니다.

中國의 毛澤東이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이고 순수한 理論을 中國現實에 맞는 概念 즉 實踐의 理念으로 만들어 中國을 다스린 것같이 金日成도 共產主義를 朝鮮化시켜서 또 조선의 길을 들여서(Domesticate) 조선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政治를 하여왔다. 즉 金日成의 共產主義思想이란 主體사상인데 이것은 反蘇思想에서 起因하는 것이다. 金日成도 맑스-레닌主義를 朝鮮現實에 맞게 朝鮮사람을 爲한 사상이라고 한다. 金은 主體에 對하여 말하기를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여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나라의 경험을 자기나라의 역사적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⁶⁾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그의 反蘇運動에서 일어났다. 즉 朝鮮이 朝鮮戰爭에 參戰하지 않았고 스탈린도 죽고 그의 格下運動도 始作하여 金은 왜 우리나라가 朝鮮공산주의를 모방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1955年 12月 黨宣傳 선동일꾼들 앞에서 反蘇發言을 하였다. 金은 人民軍 縮所에 있는 시배

6) 「김일성저작선집」, 5(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504~505.

리아雪景 그림을 우리나라 금강산이나 묘향산 그림으로 바꾸라고 하고 人民學校에 걸려있는 조선사람 마야코부스키(Mayakovsky)나 푸슈킨(Pushkin)의 초상화도 조선사람 초상화로 바꾸라고 하였다. 그리고 로동신문 主筆이었던 奇石初에게 로동신문의 표제나 내용은 프라부다(Pravda)의 표제나 내용과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또 박창옥같은 조선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카프의 프롤레타리아 文學을 批判하는 것을 욕했다.

“지금 우리 일꾼들은 자기의 선배도 모르는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본래 누구보다도 도덕이 있고 혁명선배를 존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들이며 버릇을 그렇게 길러주었습니다.”⁷⁾

라고 꾸지람하면서 以北의 많은 黨일꾼들이 맑스—레닌主義를 消化하지 않고 통채로 삼키고 있다고 하였다. 버릇을 고치라는 것이 朝鮮的으로 되라는 말이다.

金日成이 처음 主體에 對하여 이야기했을 때부터 이것을 北韓憲法條文에 넣은 1972年 12月까지 主體思想은 많이 發展하여 北韓의 唯一思想體系로 나타났다. 1963年에 金은 이 主體思想을 政治에는 自主, 經濟에는 自立, 軍事에는 自衛라는 세 項目으로 區分하고 朝鮮의 大國主義를 批判했다. 이런 面에서 보면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反蘇的인 役割을 한 主體思想의 建立은 어느 程度 朝鮮民族主義的 要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金日成이 毛澤東의 뒤를 이어 一般的 原理인 맑스—레닌主義를 朝鮮現實에 맞는 主體思想으로 만들었다는 데는 民族主義的 努力이 充分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金日成의 主體思想에는 그 實踐面에서 여러가지 民族的 問題가 있다. 첫째로 金日成의 우리나라 傳統이나 歷史에 對한 認識이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 쓰여진 조선전사는 33卷으로 되어 있는데 原始, 古代, 中世 그리고 近世史를 十五卷으로 처리하고는 十六卷에서부터 三十三卷까지

7) 「집일성저작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565.

현대사라고 해서 金日成의 革命運動을 다루고 있다.⁸⁾ 또 金은 우리 獨立運動史 中 6·10萬歲事件이나 日帝下의 光州學生事件 같은 것을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나 北韓에서는 金의 抗日運動만 熱心히 하고 있다. 金이 抗日運動한 軍隊 즉 東北抗日聯軍은 우리民族의 軍隊가 아니며 異民族인 中國共產軍이었다. 이런데 우리民族運動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反蘇運動에서 始作했으나 反中運動에는 弱하다. 實은 우리나라에서 朝鮮이나 러시아의 影響보다는 中國의 影響이 훨씬 더 强하다. 解放後만 보더라도 朝鮮은 解放後 三年동안 朝鮮軍이 北韓을 占領하고 있었으나 中共은 朝鮮戰爭 後 八年이나 駐屯하고 있었다. 金日成은 그의 成長過程을 보더라도 中國學校를 다녔고 中國軍에서 싸웠고 또 中國말도 하고 하여 尊華思想이 濃厚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며 主體思想도 中蘇紛爭의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좋다.

셋째로 제일 위험한 것은 近來에와서 金日成은 主體사상을 마치 맑스-레닌主義와 같은 一般的 原理로 아세아·아프리카諸國에 宣傳하고 있다. 莫大한 돈을 들여서 主體思想研究所를 世界의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에 선전하고 있다. 結局 主體思想은 그의 解放의 恩人인 朝鮮과 그의 救助者인 中國을 배척하는 排蘇斥中運動의 民族思想으로부터 金日成 個人을 숭배하는 思想으로 發展하였다. 이것은 民族主義思想도 아니고 共產主義思想도 아닌 그들이 이야기하는 文字그대로의 金日成主義이다. 이러한 思想은 우리 民族의 統合思想이 될 수 없다. 金日成主義란 金日成이 北韓에서 우리 民族을 獨裁의으로 治世하는데만 必要的 사상이다.

Ⅲ. 南韓의 民主主義

지금 南韓의 民主主義에 對하여는 論議가 많다. 解放後부터 오늘날까지 南韓政權이 民主主義를 施行했다는 學者는 드물 것이다. 어떻게 民主主義

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3卷(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가 南韓에서 試練을 받았다는가 어떻게 失敗했다는가 하는 冊은 많다.⁹ 또 어떤 학자들은 南韓의 非民主主義적인 政治를 무슨 韓國의 民主主義라든가 民主主義의 土着化라고 하면서 正當化하려는 것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南韓에서 民主主義를 施行했느냐 보다는 南韓의 소위 民主主義政治가 어느 程度 民族主義에 立脚해 있느냐 않느냐가 問題가 되어야 한다. 實은 韓國의 解放의 恩人이요 韓國戰爭에서 功勞를 세운 第一 友邦國家인 美國이 그의 國是가 民主主義이므로 韓國에서도 民主主義를 追從하는 것 같다. 아직도 純粹한 民族主義의 立場에서 왜 民主主義가 우리나라를 爲해 最適의 政治思想이라는 것을 밝혀준 사람도 學者도 政治指導者도 없다.

오늘날까지 해방된 南韓을 제일 오래 다스린 朴正熙의 境遇를 살펴보자. 朴正熙는 西歐式 民主主義가 우리나라 實情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¹⁰⁾ 그가 만들어낸 維新憲法을 民主主義의 標本이라고 할 사람은 없으나 그는 5.16革命을 民族革命이라고 하고 直輸入 民主主義의 強制移殖을 反對하였다. 또 그는 비록 非民族主義적인 過去를 가진 사람이지만 例를 들어서 朝鮮을 侵略占領한 日帝의 軍人이었다든지 총칼을 들고 自己民族을 다스리겠다고 軍人을 動員하였다는지, 그가 爲政者로서는 民族을 爲해 努力한 것은 事實이다. 지금 南韓의 經濟發展의 基盤을 닦아놓았고 그는 經濟的 自立이 없는 政治獨立은 無意味하다고 하였다.

朴正熙는 自己의 革命을 民族的 革命이라고 하고 東學亂·3.1運動, 4.19 學生革命을 繼承한 革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問題가 많이 있다. 東學亂은 宗教革命이요 王權에 對한 어디까지나 亂이다. 3.1運動은 他民族에 對한 우리 民族的 獨立運動이요, 4.19 學生革命은 獨裁者를 내

9) 例를들면

John Kie-chiang Oh, *Korea: Democracy on Trial*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8).

Sungjoo Han,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10) 박정희, 「國家와 革命과 나」(서울: 向文社, 1963), p. 227.

뜻은 全國民의 舉事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데 比하여 5·16 革命은 宗教 革命도 아니고 他民族에 對한 革命도 아니고 舉族의인 行事도 아니었다. 다만 經濟不進에 환멸을 느낀 軍人들의 軍事革命인 것이다. 여기에 共通性이란 있다면 民族中與創業革命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朴正熙의 政治思想이 根本적으로 非民主主義的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軍事革命을 통해 民族革命을 하려고 했고 그 目的도 自由, 平等과 正義라는 土臺 위에 民主主義政治 制度를 樹立하려고 했다.

“우리는누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權利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무엇이든지 自由로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또 남이 發表한 것을 自由로이 批判하고 討論할 수 있는 權利도 同時に 가진다.……사회환경과 法은 이러한 言論과 思想의 自由를 基本權利로 完全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은 自由民主主義의 핵심적 요소이다.”¹¹⁾

이런 말을 한 것으로보아 그도 民主主義的 政治過程을 樹立하려고 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朴正熙는 民主主義를 實踐하기는 고사하고 紙面上으로나마 韓國의 民族的 民主主義란 무엇이라는 것도 明白히 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政治風土를 마련한다는데서 新指導理念을 確立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言及을 피했다. 그는 단지 첫째 過去의 “사람中心”으로 하던 것을 “理念中心”으로 키를 돌리고 둘째는 指導理念의 缺乏을 告白하였다. 셋째로는 世代交替라고 하였다.¹²⁾ 그러면서 小英雄主義者는 一掃하자고 하였다. 그의 實蹟은 이 모든 것을 否認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南韓의 朴正熙政治에도 民族主義가 濃厚하게 보였고 民族主義에 立脚한 民主主義에 對한 理解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 問題는 實踐面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期待에 어긋난 程度로 無能하였던 것이다.

美國의 有名한 神學者 라인홀드, 니어버(Reinhold Niebuhr)는 神學者의 立場에서 政治論評을 하면서 사람이란 無限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

11)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날 길」(서울: 東亞出版社, 1962), p. 37.

12) 박정희, 「國家와 革命과 나」 pp. 251~254.

람이 사람이면서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行勢를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¹³⁾南韓의 民主主義는 民族主義에 立脚했느냐가 問題가 아닌 것 같다. 다만 民主主義의 制度를 세우고 그 制度下에서 우리 民族에게 有益한 일을 充實히 하는 것이 急先務인 것 같다. 또 南韓의 指導者는 먼저 우리 民族의 指導理念이 무엇인지를 明白히 내세우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解放後 40餘年동안 우리나라 政治에서는 南韓에서 軍人들이 經濟發展을 이룩한 것과 北韓에서 金日成이 主體思想으로 人民을 묶어 놓은 것 外에는 우리 民族을 爲해 民族主義의 思想은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

IV. 結論을 대신하여

解放直後 아직도 左右合作이 論議가 되고 있었고 共產主義者들과 民主陣營사람들이 서로 協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著名한 學者의 한 사람이었던 白南雲氏가 「朝鮮民族의 進路」라는 조그마한 冊子를 써서 聯合性 新民主主義라는 것을 提唱한 일이 있다.¹⁴⁾ 이 글에서 그는 우리나라 民族이 뭉칠 수 있는 세 가지의 提案을 하였다. 이것은 첫째로 被壓迫者의 解放을 포함한 조선民族의 完全解放과 둘째로 民主主義를 政治理念으로 삼을 것과 셋째로 民主主義 民族經濟를 制度化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그는 聯合性 新民主主義라고 하고 이것은 美國式 資產階級의 民主主義도 아니고 朝鮮式 無產者의 獨裁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共產主義者들과 民主主義 陣營사람들이 統合할 수 있고 聯合活動할 수 있는 方法이라고 말했다. 白氏는 그 當時 共產黨員도 아니었다. 그는 그 후 越北하여 金日成의 敎育相도 하고 最高人民會議議長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

13)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 and Sons, 1960).

Reinhold Niebuhr,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Charles Scribner and Sons, 1944).

14) 白南雲, 「朝鮮民族의 進路」(서울: 신곤사, 1946).

더까지나 우리나라民族主義에 立脚한 南北이 統合할 수 있는 理念과 方案을 찾아야 한다. 勿論 白南雲의 聯合性 新民主主義같은 理念은 아주 복잡하게 發展한 金日成主義나 南韓의 軍人政治를 統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北의 公산주의와 南의 민주주의를 統合하려면 우리 民族의 民族主義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民族主義란 무엇이나? 우리나라 民族主義 立場에서 보면 1948년에 南韓에 單獨政府를 세운 李承晩이나 그 후 北韓에 따로 政府를 마련한 金日成이나 다 非民族主義的인 行爲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面에서 보면 나라의 分斷을 念慮했던 金九나 金奎植을 좀 더 潔白한 民族主義者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南北이 갈라져 敵對視하고 있는 것은 韓國戰爭이란 우리 民族의 南北戰爭이 있었기 때문이다. 韓國戰爭만 보더라도 이것은 南韓에서 이야기하는 韓國戰爭도 아니고 北韓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祖國解放戰爭도 아닌 우리民族에게는 非民族的인 南北戰爭이다. 우리나라에 무슨 外勢가 侵略했다면 이것을 反對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金日成이 이야기하는 祖國解放戰爭도 以北이 以南을 쳐내려 왔을 때는 南韓에는 美軍이 없었을 때였다. 그 때야말로 南北의 指導者들이 平和的으로 統合하고 和合하여 妥協에 努力했어야 民族史에 民族主義運動者로 남을 수 있었다.

南北 우리 民族의 共通性은 아직도 많다. 歷史, 言語, 風習, 環境 등, 또 우리 民族은 南北을 莫論하고 그 民族性이 强하다.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思想的으로도 北韓의 共產主義는 金日成主義로 變했고 南韓의 民主主義는 軍人中心의 經濟發展을 이룩하려는 데 머무르고 있어 統合이 絶望的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제일 큰 問題는 어떻게 하면 좋은 共產主義신봉자가 되느냐가 아니며 또 어떻게 하면 훌륭한 民主主義體制를 樹立하느냐도 아니다. 다만 이러한 相異한 主義主張을 어떻게 民族主義的 理念 밑에 統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民族은 北이나 南이나 다 내 祖國이라고 생각해야 한다.